

# 물결치는 우리들의 꿈

---

나는 중학교 졸업을 한두 달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일거리 하나를 만들어서 열중하고 있었다. 넓다란 운동장 옆에 무너진 석단같은 것이 있었고, 그중에 제법 쓸만한 돌맹이 하나를 골라서 커다란 못으로 쪼아 나의 이름 석 자를 새기는 작업이었다. 졸업을 하고나도 이름자는 남아서 오래도록 모교를 지켜볼 것이며, 그토록 소중히 새겨진 나의 성공과 더불어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리라는 어린 꿈의 소산이었다. 그 때도 상급학교 입학경쟁은 치열하여서 입시준비가 바쁜 시간인데도 점심 시간만 되면 교실을 떠나 작업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는 처음에는 놀려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성공하면 나에게 금으로 만든 두발자전거 한 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일이 있었다. 참으로 살벌하고 세련되지 못한 꿈이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그토록 넓어 보이기만 하던 운동장도 좁다랗게 보여지는 나이가 되었으며, 돌더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금으로 만든 두발자전거를 선물하겠다고 친구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옛일이 되었고, 그때의 꿈처럼 후배들에게 기억시킬 이름자도 가꾸지 못한 나이지만,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릴 때마다 나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용기가 되살아 나곤 한다.

학교라는 공간은 수많은 학생들이 호흡을 같이 하며 가치있는 목적을 향해 생활을 해 나간다. 운동장도 교실도 도서관도 화단도 모두가 생활의 공간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삶의 장이다. 따라서 어떤 학생이 어



## 교 장 한 성 완

떤 사건으로 그 공간 내부에 꿈을 심는 것은 그의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모두가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를 매일 말없이 실행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그만의 색다른 의미로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학생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흥에 겨워 서로 어깨를 걸고, 신명난 대동놀이 한 판을 하면서 함께 얻은 그들만의 소중함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그들만의 것이다. 이처럼 같은 학교의 공간을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살아 있는 활동과 나날의 노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것은 각자의 창의력이고, 자기 성찰에 따른 자각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인항의 동심원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창조적 공간을 비워 두고 싶은 것이 나의 욕심이다. 자주적 삶의 터로써 마련한 우리들의 공간이 자칫 팽개쳐 두면 보기 흉한 낙서판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철철 넘치는 똥지개를 땀 흘리면서 넓은 들녘의 어린 싹들에게 정성스럽게 뿌리는 농부의 따뜻한 손길처럼 스스로 꿈을 가꿀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인항의 동심원은 넓디 넓은 정서의 옥토로, 날개를 솟구쳐 비상할 독수리의 둥지로,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젊은 인항인들이여!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내일의 주인을 기다리는 동산을 찾아 물결치는 우리들의 꿈을 심어 보자. 소중하게 가꾸어 보자.